

이강인 돕고 손흥민 '쾅'…빛난 '합작골'

태국원정 완승…황선홍 임시감독 A매치 데뷔승

이재성 선제골·박진섭 늦깎이 데뷔골 3대0 C조 선두 굳히며 사실상 3차예선 진출 확정

컵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손흥 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 르맹)의 합작골을 앞세워 태국을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완파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 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 선 C조 4차전에서 전반 19분 이재 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의 추가골 등을 엮 어 태국에 3-0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이 골 지역 왼쪽 사각에 서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왼발로 결정지은 추가골은 이강인이 도왔

(승점 10·3승 1무) 자리를 더욱 굳 히며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오르는데, 이날 싱가포르에 승리 한 중국이 2위(승점 7), 태국이 승 점 4로 3위에 자리했다.

황 감독은 A매치 데뷔승을 거뒀

본업이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은 전임 위르겐

황선홍호가 2023 카타르 아시안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 임시 로 A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이번 3 월 태국과의 A매치 2연전을 지휘,

전반 2분 만에 첫 슈팅을 허용하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는 등 다소 불안하게 경기를 시작 한 한국은 전반 중반부터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 그간 대표팀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도 묵묵히 제 몫을 다하던 이재 성이 선제골을 뽑아냈다.

전반 1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 들며 상대 골키퍼도 제친 뒤 오른 발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이 빗맞아 골대 앞으로 굴러가던 중 이재성이 태국 수비 한국은 이날 승리로 C조 선두 수 티라손 분마탄과 경합한 끝에 골라인 너머로 공을 밀어 넣었다.

한국은 전반 43분 김문환(알두 하일)의 스로인이 상대 공격진에 각 조 상위 두 팀이 3차 예선에 게 연결돼 동점골을 내줄 위기를 맞기도 했다.

>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합작 골로 경기를 '대승 분위기'로 몰아

이강인의 정확한 전진패스가 손 흥민의 추가골로 이어졌고, 이강 인이 손흥민에게 안기는 골 세리



지난 26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 기. 후반전 추가골을 넣은 손흥민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머니로 팬들을 흐뭇하게 했다.

쐐기골은 후반 시작과 함께 백 승호 대신 교체 투입된 박진섭(전 북)이 책임졌다.

후반 37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머리로 떨구자 문전의 박진섭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월드컵 2 차 예선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 을 치른 28세 박진섭이 6경기 만에 넣은 A매치 데뷔골이다.

박진섭은 실업축구 대전 코레일 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 지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리그로 올라서더 니 K리그1 강팀인 전북 유니폼까 지 입은 선수다.

"강인이 오랜만에 안아보니 귀엽다"

손흥민, 합작골 터뜨린 직후 이강인과 포옹

엽고,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손흥 민과 이강인이 2023 카타르 아시안 컵 이후 불거진 논란을 씻어내는 뜻깊은 골을 합작했다.

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원정 경기 후반 9분 시 원한 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의 왼발 침투패스가 페널 티지역 왼쪽으로 뛴 손흥민에게

"오랜만에 안아봤는데 너무 귀 의 가속력으로 수비수를 제친 후

득점 직후 어시스트를 배달한 이강인은 손흥민을 향해 뛰었다. 기뻐하는 이강인을 확인한 손흥민 은 팔을 활짝 폈고, 기쁨의 포옹을

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인터뷰 에 나설 때도 함박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 다툼이 있 을 수 있다"며 "강인 선수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훌륭한 선수, 사 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100% 확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기술, 재능 측면에서 앞으 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선수라 확신한다"며 "5천만 국민께서 보 고 계신다는 걸 인지하고 선수 생 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들의 포옹은 두 선수뿐 아니 라 한국 축구 전체에 뜻깊고 상징



민과 이강인이 팬들에게 인사 후 어깨동 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26일 열린 태국과의 20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을 얼싸안은 손흥민의 얼

손흥민은 "축구를 하다보면 서 정확히 전달됐고, 손흥민이 특유 로 너무 승리욕이 강하고, 원하고 적인 장면이다.

/연합뉴스

'황선홍 없는 황선홍팀' 한국 U-23 대표팀

호주 꺾고 WAFF 챔피언십 우승

승부차기 끝 4대3승리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 임시 지휘 봉을 잡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024 서아 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 십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

한국 U-23 대표팀은 27일 사우디아 라비아 알 무바라즈의 알 파테 스타디 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전·후반 90 분 동안 호주와 2-2로 팽팽히 맞선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김정훈 (전북)의 연이은 선방으로 4-3으로 이 겨 우승을 차지했다.

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겸해 열리는 2024 아시아축구연맹(AF C) U-23 아시안컵의 전초전 성격 대회

팀 임시 감독으로 태국과의 2026 북중 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연전 을 지휘하느라 자리를 비워 '황선홍 없 는 황선홍팀'으로 대회에 참가했지만, 선수들이 똘똘 뭉쳐 태국, 사우디아라 비아, 호주를 연파하며 우승이라는 값 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전반 11분 호주의 알루 쿠올 에게 선제 실점해 끌려갔지만 전반 26 분 이영준의 헤더 골로 균형을 맞췄다. 전반을 1-1로 마친 한국은 후반 17분

상대의 패스 실수를 유도해 역전 골을 뽑아냈다.

상대 진영에서 이강희(경남)가 공 이번 대회는 내달 15일부터 카타르 을 뺏어 냈고, 강성진(서울)이 이어받 아 페널티 라인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다.

한국은 10분 뒤 호주의 쿠올에게 다 시 골을 내줘 동점을 허용했고, 양 팀 황선홍 U-23 대표팀 감독이 A대표 은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에



+

승부차기 끝에 호주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U-23대표팀.

실패했다.

호주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 에서 한국은 골키퍼 김정훈의 눈부신 선방이 빛났다.

양팀의 1-3번 키커가 나란히 골망을 흔든 상황에서, 김정훈이 호주의 네 번

째 키커 제이크 홀먼의 슛 방향을 읽고 정확히 막아냈다. 한국의 네 번째 키커 서명관(부천)은 깔끔하게 성공했고, 이후 김정훈이 호주의 다섯 번째 키커 가랑 쿠올의 슛까지 막아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SNS 캡처〉

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7월6일 인천서 막오른다

2008년 이후 16년만



구연)와 10개 구 별들의 축제다. 단은 지난 26일 통해 '2024 신한 S

OL뱅크 KBO 올스타전'을 SSG의 홈 구장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 최하기로 확정했다.

G랜더스필드에서 허구연 KBO 총재 와 유정복 인천시장, 민경삼 SSG랜더 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야구 팬 앞에서 직접 올스타전 인천 개최를 발표했다.

인천에서 KBO 올스타전이 열리는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이며, SSG 랜 KBO (총재 허 더스 창단 이후 홈 구장에서 열리는 첫

특히 올해 올스타전은 인천 야구도 개최된 이사회를 입 120주년을 맞이해 리그 축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도시 브랜드 및 다양한 정 책 홍보를 통한 지역 축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KBO는 올해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이날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인천 SS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전달 하기 위해 클리닝타임 콘서트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시즌 중 순 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KIA 타이거즈, 선한병원과 지정병원 협약



지난 2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선한병원 업무 협약식에서 KIA 타0 거즈 박형배 지원실장, 심재학 단장, 선한병원 이태민, 최민선 원장, 박성록 센터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한병원은 2018년 KIA 타이거즈의 지정병원 협약식을 맺은 뒤 매 홈경기 (광주·함평)에 전문 의료진을 파견해 선수단의 부상 관리를 책임져 왔으며, 경기 중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왔다. 〈KIA 타이거즈제공〉



오클랜드와의 시범경기에 출전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왼쪽)와 MLB 월드투어 서울 공식개막전에 나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 /AP=연합뉴스·공동취재

이정후 1번 對 김하성 5번

MLB닷컴, 29일 SF對 샌디에이고 본토 개막전 예상

오는 29일 오전 5시10분 미국 캘리포 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 리는 미국프로야구(MLB) 본토 개막 격수로 예상됐다. 전 15경기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자 이언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일 전이 한국과 미국 서부지역 팬들의 시 선을 끈다.

MLB닷컴에서 두 구단을 취재하는 담당 기자들은 27일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4연전 첫 경기 예상 라 인업과 관전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다.

MLB닷컴은 시범경기에서 줄곧 샌 프란시스코의 공격 첨병으로 중용된 이정후가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도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후와 마찬가지로 스토브리그에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은 새 식구 호르헤 솔레르(2번 지명 타자)와 맷채 프먼(4번 타자 3루수)을 밥 멜빈 감독 이 상위 타선에 기용할 것으로 MLB닷 컴은 내다봤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5번 타자 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지난 20-21 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정규리그 시즌 개막전을 먼저 치른 샌디에이고 는 산더르 보하르츠 (2루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우익수)-제이크 크로 넨워스(1루수)-매니 마차도(지명 타 자)-김하성 순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맞설 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우완 로건 웨브를 3 년 연속 개막전 선발로 내세우고, 샌디 에이고는 MLB 서울시리즈 1차전 선 발인 우완 다루빗슈 유를 내보낸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경쟁하는 두팀은 올 시즌 13번 격돌한다.

샌디에이고 4연전이 끝나면 두 팀은 4월 6-8일 샌프란시스코로 옮겨 3연전 을 벌인다. /연합뉴스